

대서북의 〈 화얼 〉 — 다민족 융합의 메아리



▲ 〈 화얼 〉을 부르고 있는 부부

“은 세상 ‘화얼’(花儿)은 한가족, 마음은 이어지고 손에 손잡았네. 각 색 모란꽃 한자리에 피여 아름다운 앞날은 더욱 빛나리!”

급년 6월, 감숙성 민현에서 진행된 ‘화얼’예술월 개막식에서 노래 〈은 세상 ‘화얼’은 한가족〉이 사람들의 마음속 감정을 구가했다.

〈화얼〉은 감숙, 청해, 녜하 등 중국 서북지구에 널리 전파된 토착 민요로 가사에서 녜성을 꽃에 비유한 데서 그 명칭이 유래하였다. 2009년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명부에 등재되었으며 매우 높은 문학예술가치로 ‘대서북의 혼’이라고 불리운다.

가장 독특한 점은 이는 한족·장족·회족 등 여러 민족들의 공동 창조와 향유이며 주로 한어 방언 하나로 련창된다는 데 있다.

〈화얼〉의 핵심 전승지역은 청장고원과 황토고원이 맞닿은 지역이다. 이곳은 유목과 농경의 과도대이며 다민족 교류융합의 역사적 통로이다.

바로 이 독특한 지리·인문 환경이 〈화얼〉의 독특한 음색을 형성하였다. 높고 맑은 곡조는 투과력이 강하고 한족 방언으로 표현해내는데 대대에 걸쳐 여러 민족의 교류와 융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공동체의식을 구현한다. 이로부터 〈화얼〉은 집단기억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민족 공생 역사를 입증하는, 소리로 된 불멸의 예술유산이라 할 수 있다.

화얼축제(花儿会)는 민요 〈화얼〉을 부르는 문화마당이자 다민족 교류의 공간이다. 매년 여름 농한기가 되면 서북지역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감숙, 청해 등지의 명산인 이랑산, 련화산, 송명암 같은 경치가 수려한 곳에서 진행된다. 축제날이면 현지 주민들은 단장을 하고 산림에 모여든다. 나무 그늘 아래에, 들판에, 개울가에 둘러앉아 부르는 노래소리는 새벽부터 밤하늘에 별이 뜰 때까지 천지에 울려 퍼진다.

최근 감숙, 청해, 녜하 등지는 무형문화유산 〈화얼〉의 보호·전승체계를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본연의 맛을 유지하는 토대 위에서 표현을 혁신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예술 발전의 길에서 창조적 변용과 혁신적 발전을 모색하도록 〈화얼〉 전승인 및 가수들을 장려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다민족 융합의 정수를 담은 이 찬란한 ‘꽃’이 세월이 흘러도 시대의 새 메아리로 울려 퍼지게 하고 있다.

/ 신화넷

민족문화로 빛낸 ‘송도 향촌 밤공연’



“둥! 둥! 둥둥둥!” 귀주성 동인시 송도묘족자치현 구룡호 문화광장에서 묘족의 힘찬 화고(花鼓)소리가 밤의 고요를 깨뜨리며 ‘송도 향촌 밤공연’(松桃村晚)의 막을 열었다. 3월 1일부터 이어진 향촌 밤공연 행사에서 민족문화의 독특한 색채를 담은 프로그램들이 번갈아 공연되며 송도의 민족문화 유전자를 특별한 방식으로 선보였다.

현재 향촌 밤공연은 단순한 문화축제를 넘어 향촌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보여주는 핵심이 되고 있다. 민간에 잠들어있던 전통문화에 생기를 불어넣은 동시에 젊은 세대들이 고향 문화에 깊은 이해와 동질감을 갖게 하였다. 오늘날 향촌 밤공연은 지역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잡으면서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 신화넷

울란무치 창작 공연 이목 집중



6월 26일 저녁, 내몽골자치구 알샤우기(阿拉善右旗)의 울란무치(乌兰牧骑) 창작 공연이 감숙성 장액시 감주구 감주부성(甘州府城)에서 열렸다. 민족 특색이 넘치는

무용, 맑게 흐르는 목가(牧歌), 아름다운 마두금 소리가 고성(古城)의 밤하늘에 울려 퍼지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 중국신문넷

풍년을 기원하는 부이족 전통 명절 ‘류월륙’ 성대히 개최



▲ ‘류월륙’ 행사 현장

최근, 귀주성 룽반수시 수성구 미라진 룽요촌 부이족 문화광장에서 일년에 한번씩 열리는 부이족 전통 명절 ‘류월륙’(六月六) 축제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현지 부이족 동포들은 화려한 민족 의상을 차려입고 한자리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명절을 경축했다.

‘류월륙’은 부이족의 가장 중요한 전통 명절중 하나로 풍년을 기원하고 대자연에 감사를 표하며 문화를 계승하려는 부이족 사람들의 아름다운 념원을 담고 있다. 이는 부이족 문화의 생동한 구현일 뿐만 아니라 민족정신의 상징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과 선조에 대한 그리

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응축되어 있었다.

6월 29일 오전, 다채로운 경기가 잇달아 펼쳐지면서 현장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열정이 가득했고 현장은 응원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오후에 열린 개막식과 문화공연은 수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이족 청년들이 직접 빛은 전통 막걸리를 들고 〈경주가〉(敬酒歌)를 부르며 사방에서 온 손님들을 환영했다. 이어 〈부이족 경주가〉, ‘부이족 문화 전시공연’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는데 공연자들은 아름다운 춤사위와 경쾌한 노래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부이족 사람들의 열망과 동경을 표현했다.

다채로운 경기와 문예공연외에 부이족 전통 음식 체험도 있었다. 부이족의 장탁연(长桌宴)에는 각종 특색 요리가 가득했는데 관광객들은 전통 철판구이를 맛볼 수 있었고 또 부이족 녜성들이 직접 빛은 막걸리도 즐길 수 있었다. 해가 지자 전장무(转场舞, 부이족 전통 무용) 행사가 현장을 활활 달아오르게 했다.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손에 손잡고 모닥

불을 둘러싼 채 경쾌한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부이족의 독특한 문화 매력을 한껏 느꼈다.

6월 30일에는 또 쫄즈 만들기, 향주머니 던지기(丢糠包), 바줄 당기기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검유미·노래와 시, 서예의 융합 전시(黔有味·歌与诗书法融合展)’가 열렸다. 서예와 시의 융합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향연을 선사, 예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동시에 부이족의 문화 저력을 깊이 룽해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이번 문화축제에서는 특별히 미니 동영상 창작 대회를 마련해 당지 부이족 문화에 대한 홍보와 보급에 참여하려는 관광객들의 열정을 고취시켰다.

최근 몇년간 수성구 미라진은 향촌 진흥전략을 둘러싸고 당지의 자원 우세를 충분히 살려 문화관광산업을 활발하게 발전시켜왔다. 이번 ‘류월륙’ 부이족 풍정 문화축제의 개최는 민족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했을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미라진에 대해 알고 미라진에 찾아와 부이족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했다.

/ 중국신문넷

서장의 ‘낭마퇴해’대회



최근 첫 ‘링카낭마퇴해’(林卡囊玛堆谐) 대회가 라싸 다즈구(达孜区)에서 열렸다. 예선을 통과한 19개 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경연을 진행했다. ‘낭마(囊玛)’와 ‘퇴해(堆谐)’는 서장의 두가지 전통 가무 형식으로

합쳐서 ‘낭마퇴해’라 불린다. 이는 노래·춤·음악가가 어우러진 높은 예술 경지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현지 주민들의 사랑과 열띤 지지를 받고 있다. 사진은 대회 첫날 현장 풍경이다.

/ 인민넷

图说
我们的
价值观

辛勤劳动 万事如意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舞阳 周松晓作